

그림 동화 위키키(Wikiki)를 만나게 될 부모님(혹은 보호자)에게 보내는 작가의 서신

위키키에 표현된 그림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마음껏 상상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림 동화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살짝 공개해 드릴게요.

엄마, 아빠만 알고있는 소소한 이야기보따리로 아이들과 즐겁게

펭귄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A note from the creator and author of Wikiki

This note is intended for our children audiences to discover true creativity in the deep down of their hearts while viewing the pictures in the story book with their parents. By sharing this behind-the-scene story only with parents, the author James Wolf believes the children will expend their imagination beyond their limit and enjoy every moment of reading.

Shall we meet our hero friend Pengki?

James Wolf, from New York.

“ 위키키(Wikiki) 그림 동화

위키키동화는 테마에 따라 시즌으로 기획되어, 시즌 1편에는

위키키 친구들(펭키, 베키, 레키, 멍키)의 모험이 펼쳐집니다.

위키키 친구들의 모험부터 친구, 가족 그리고 지구와 우주의 환경 문제까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게 될 이야기를

부모님 또는 선생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 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젝트 동화입니다. ”



펭키(황제펭귄)의 비밀 : 소심하고 내성적인 펭키는 사실 할아버지로 부터 엄청난 재능을 물려받았어요. 아직 어린 펭키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 펭키가 미리 알기엔 너무 큰 비밀이라, 아직 엄마 아빠도 펭키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펭키가 더 큰 어린이가 되면, 여러분도 그 비밀을 알게 되겠죠?^^



베키(북극곰)의 비밀 : 항상 뒤에서 몰래 펭키를 훑쳐보는 베키는 사실 너무나도 외로운 아이예요. 위키키마을의 '낯선 친구'인 베키는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보다 착한 심성을 가졌죠. 언젠가 펭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될 숨겨진 동반자 '베키'. 우리 아이에게 베키의 외로움을 설명하면서 주위에 혹시 새로 이사온 친구가 있는지, 새로 이사 왔거나 다문화 가정의 친구처럼 혹시 조금은 다른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 지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Tip. 아이와 함께 페이지마다 숨어있는 북극곰 베키를 찾아보세요, '월리를 찾아라!' 처럼요.^^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면 좋아요!

하나. 걸모습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설령 낯설은 외모의 친구라고 해도 말이죠.

둘. 환경오염이 계속되면 빙하가 계속해서 녹아내려요. 미세먼지도 더 심해지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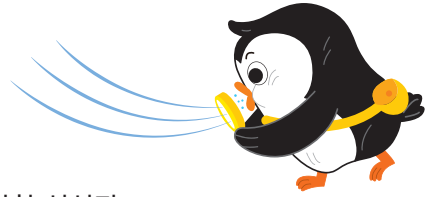
셋. 어려움을 이겨내는 펭키처럼, 꾸준히 노력하는 아이에게 불가능은 없어요.

넷. 펭키처럼 우리 아이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모험을 시작해야해요.

멋진 모험을 시작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아이와 이야기해주세요.

Pengki, the breath king

위키키(Wikiki) 첫번째 이야기.
'Pengki, the breath King, 모험의 시작'



세계를 여행 중인 전설적인 모험가 윌리의 손자, '펑키'는 착한 심성과 모험심으로 가득한 남극 위키키 마을의 어린 황제펑귄이에요.

아기같은 외모 때문인지 또래 친구들에게 쉽게 놀림도 당하고 장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특히, 북극곰 베키는 펑키옆에서 짓궂은 장난을 치는 친구였어요. 지구 온난화로 변화한 기후 때문에 살던 마을이 녹아내려 결국 북극에서 남극으로 떠내려온 베키(외국인 아이, 다문화 가정)는 오로지 펑키에게만 관심을 두고, 친구가 되고 싶어해요. 때로는 짓궂은 장난을 치거나 괴롭힐 궁리를 하는 베키지만, 어쩌면 둘은 그렇게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가나봐요.

펑키는 아빠 펑귄이 매일 밤 잠들기 전 이야기해주던 따뜻한 나라의 포키숲을 가보는게 소원이예요. 포키숲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무지개 꼬리를 가진 멍키가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포키숲은 넓고 넓은 바다를 건너가야 해요. 아직 어린 펑귄인 펑키에게는 너무나도 먼 곳이죠. 그렇지만, 펑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늘 어떻게 하면 포키숲을 갈 수 있을지 고민했죠.

그러던 어느날, 아빠 펑귄이 펑키에게 이야기했어요. "펑키야, 이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위키키'란다. 이것만 있으면 포키숲으로 갈 수도 있어. 하지만, 위키키를 쓰려면 힘든 훈련을 해야한 단다.

할 수 있겠니?" "네! 그럼요!" 펑키는 새로운 희망에 눈이 반짝반짝 했어요.

위키키는 펑귄이 입으로 부는 바람에만 움직이는데, 아가 펑귄의 바람으로는 어렵도 없어요.

"아가, 몇 번만 해서는 위키키를 쓸 수 없어.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해" 후우 후우, 아빠의 말처럼, 펑키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바람 부는 연습을 했답니다. 전설의 위키키 호흡(복식호흡, 횡격막호흡)을 익힌 펑키는 시간이 흘러, 작고 어린 아가의 모습이 아닌 어엿한 튼튼한 어린이 황제펑귄으로 변신 했어요.

펑키는 이제 그 어떤 펑귄보다 바람을 잘 부는 어린이 펑귄이에요. 위키키와 함께 똑똑해지는 훈련을 함께 할 수 있어서인지, 펑키는 바다 속 잠수까지 오래오래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매일매일 노력한 펑키는 건강하고 똑똑해져서 혼자서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어린이 펑귄이 되었어요. 바다를 건널 때 타고 갈 이글루 배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위험천만한 여행이 될 지도 모르지만, 결국 펑키의 엄마 아빠도 펑키의 모험을 응원해주기로 했고, 펑키는 이제 또 다른 세상으로 떠나간답니다. 하지만 걱정 말아요. ^^

펑키는 윌리 할아버지의 손자인걸요.

"엄마, 아빠 걱정 말아요. 저, 모험을 마치고 건강히 돌아 올게요!"

자, 그럼... 모험을 시작해볼까요~?